

## 이집트 작가가 보이는 여성성…‘가다 아메르’展 열려

2013/05/10 09:25 등록 (2013/05/10 09:25 수정)



▲ 'The Blue Bra Girls' (2012/casted, polished, stainless steel/182.9 x 157.5 x 137.2cm) [사진=국제갤러리]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국제갤러리는 오는 17일 이집트 출신의 여성작가 가다 아메르 (Ghada Amer, Egyptian, 1963-)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아메르의 개인전은 그녀의 국제갤러리 세 번째 전시로서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구해 왔던 여성성에 관한 다층적인 감성 및 여성성에 관한 사회적인 쟁점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번 전시는 그녀의 작품세계의 가장 특징적인 섬세함, 유머러스 함, 그리고 입체적인 의미의 에로티시즘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나아가 무바라크 정권하의 진보적 이집트 여성들의 저항적인 정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대립되는 감수성을 브론즈 설치조각 및 자수회화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아메르는 중동의 이집트 생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외교관 아버지 덕에 해외여행을 통한 다양한 문화적 수혜를 받았고,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지내며 일찍이 서구화된 교육을 받았다. 또한 십대시절, 잠시 병을 앓으면서 받은 미술치료인 드로잉과 페인팅은 오늘날까지 그녀의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주요한 작품세계의 근간이 되었다.

가다 아메르는 보스톤의 스쿨 오브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School of the Museum of Fine Arts) 수학 후, 프랑스 니스의 에콜 드 보자르(Ecole des Beaux Arts)에서 페인팅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수많은 그룹 및 개인전을 해온 작가는 제48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하여 유네스코 상(UNESCO Prize)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한국의 부산 비엔날레 (PICAF)와 광주 비엔날레에 참가하여 이미 국내 관객들에게도 소개된바 있다.